성인여성의 자아실현도가 의복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elf-Actualization On the Clothing Selection Behaviors among adult Women

경상대학교 자연대학 의류학과
교 수 **강 경 자**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yeoung-Sang Univ.
Professor; **Kyung-Ja Kang**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논의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self-actulization and demographic variables upon the selection of clothes among adult wome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erized as follows;

1. Marital status has direct effect on the self-actualizing values, Marital status and houshold type have direct effect on the inner directed and self-regard traits. Marital status and monthly income have direct effect on a capacity for intimate contact.

2. Self-actualizing values and inner directed traits are directly related with individuality of clothing. Frequency of contact with massmedia, household type and employment have direct effect on the individuality of clothing.

3. Self-regard, self-actualizing values, school career and houshold type have direct effect on the conformity of clothing.

4. Self-actualizing values, capacity for intimate contact and frequency of contact with massmedia have direct effect on the fashionability of clothing.

I. 서 론

1. 문제의식

패션은 사회현상을 어느정도 반영해 주므로서 사회변화의 지표가 되어 왔다.

우리사회는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패션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며 오늘날 처럼 사람들이 다양한 패션에 민감했던 시대도 일찌기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의 의복은 유행을 추

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순히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다.

Simmel[1]은 유행은 동조와 개성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두 욕구중 어느 하나가 없으면 유행의 성립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상반된 욕구중에서 어느쪽을 강하게 갖는냐에 따라 의복에서 그들의 행동양식이 달라지게 된다고 본다.

심리학자들은 개성주의자와 동조주의자들의 Personality와 행동성향은 상반된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2] 이러한 상반된 성향은 자기성취의 장(場)이 되는 의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Goldstein[3]은 모든 생활의 장에서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자아실현의 정도가 개인의 잠재력이나 환경 더 나아가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특히 Maslow[4]는 개인의 잠재력이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아실현의 의미는 개인마다 다르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가지 demographic 요인들이 자아실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기표현의 장인 의복에서도 자아성취의 표현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보며 그 실현의 의미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의복에서 개성·동조의 상반된 행동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패션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행하는 집단구성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아실현, 메디아접촉도(여성잡지) 및 인구통계학적변인 즉 연령, 결혼여부, 학력, 수입, 성장지역, 가족형태, 종교유무, 직업유무를 관련시켜 분석하므로서 이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자아실현도에 미치는 영향과 성인여성의 의복선택 행동에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아실현 변인중 어떤 변인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경로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실현도 및 인구통계학적변인들이 어떤 경로과정을 거쳐 의복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코저 하며 해답을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성인여성의 자아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변인을 밝힌다.

2) 성인여성의 의복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실현 및 인구통계학적변인을 밝힌다.

(1) 의복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변인을 밝힌다.

(2) 의복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실현변인을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실현

심리학이 과학의 한분야로 성립된 이후 많은 학자들은 자기자신에 대하여 지각하는 정도가 개인행동을 결정짓거나 통제하는 요인이 되며, 또한 그것은 모든 생활의 장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려는 자아실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자아실현 개념에 접근하려고 할 때 그 기초개념으로서 자아와 자아개념부터 고찰할 필요가 있다[5]고 본다.

Freud는 성격구조가 원욕(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의 세가지 주요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아의 모든 힘은 원욕에서 나온다고 보고 자아의 주요역활은 유기체의 본능적인 요구와 주위환경의 상태와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

Purky[6]는 자아란 자신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는 신념, 태도, 견해의 총체로서 정의한다고 하였다. 또한 Hall과 Linzey는 자아의 개념을 두가지 의미로 분류하고 있다. 그 하나는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감정이나 태도의 집합체로 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행동이나 적응을 통제하는 심리적인 과정의 집합체로 보는 것이다.[7] 이와같이 자아개념은 인성의 중요부분이며 태도나 동기와 마찬가지로 개인차를 나타내는 한 차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8]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자아개념에 근거하여 자아실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Goldstein은 자기실현의 충동(drive

of Self-acutualization)을 유기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동기로 보고 욕구의 목표, 대상은 "긴장의 제거"가 아니고 유기체 다음에 계속될 활동중에 자기실현을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모든 욕구는 인간으로 하여금 결핍을 보충하도록 동기를 불러 일으키는 결핍 상태이고 그것은 메워지기를 원하는 구멍과 같으며 욕구의 이러한 보충이나 충족이 자아실현의 의미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자아실현이 본질에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그들 개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지시하는 선천적 잠재력이 다르고 또한 그들의 적응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을 획득해야 하는 환경과 문화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

Maslow도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과정중에 있으며 이러한 형성(becoming)의 과정 또는 자아실현을 인간본성의 고유한 것으로 간주하였다.[4,9] 박채균등[5]은 자아실현이란 개체의 객관성, 통정성, 일관성의 체계화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단지 '나'의 확인이나 주어진 운명으로 결정된 편협된 '나'가 아니라 앞으로 되려는 '나'(a being in the process of becomong) 또는 나의 의지와 결정의 주관자로서 '나'에 관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Rogers[9]는 개인은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잠재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취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자아실현 경향은 모든 형태의 삶에 공통적인 것이지만 자아실현이 완전의 최종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인간은 완벽하게 자아실현을 해서 이 동기를 포기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Maslow[10]에 따르면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욱 충실히 활동하며 더욱 풍부한 생을 영위해가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식하며 자신이 갖고있는 독특한 능력이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장해가는 사람이며 자기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보다 언제나 감정의 혼란을 덜 일으키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의복선택행동

의복에서 동조성은 준거집단의 의복규범을 따르므로서 일치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의복에서 개성은 준거집단과 무관하게 독립된 의복행동을 함으로써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11]

Cruchfield[12]는 동조경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시나 의견에 강한 관심을 나타내는 개인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Marlowe와 Gergen[13]은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 강한 사람보다 집단의 압력에 따르기 쉽다고 하였다.

William와 Eicher[14]에 따르면 청년문화에서는 동료집단의 영향력이 강하며 이 동료집단안에는 개성이 집단규범에 내재되어 있을지라도 동조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Secord와 Backman[15]은 개인이 성숙해감에 따라 동조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고 하였으며 Smucker[16]도 자신감이나 자기확신을 가질 수록 개성적인 의복을 착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Beloff[17]는 권위주의와 동조사이에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고 Chen[11]은 중국과 미국여대생 집단의 의복에 대한 동조성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중국학생이 미국학생보다 의복의 동조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강경자[18]도 한국여대생이 미국여대생보다 동조적인 의복행동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Chen은 그 이유를 일반적으로 중국인은 미국인보다 집단지향적이어서 그들의 집단규범을 고수하려는 성향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김정호[19]는 나이가 젊을수록, 양명희[20]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선재[21]는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개성을 더 중시한다고 하였다. 또한 Cruchfield[2]는 책임감 및 사회적 참가도와 동조간에 부의 상관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Ebeling과 Rosencranz[22], Shipley등[23]은 대다수의 나이든 여성들이 스타일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Jenkins[24]는 동조성이 강한 집단이 의복의 유행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강혜원[2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동조, 개성과 유행에 대한 관심사이에는 상관이 없어 여자들은 유행과 개성에 똑같이 관심을 가질 수도 낮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3. 자아실현과 의복선택행동

Maslow의 욕구위계설에 의거하여 현대인에게 적합한 욕구계층구조를 제시한 Hersey와 Blanchard는 의복행동의 배후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욕구는 소속욕구와 자아실현 욕구라고 하였다.[26] 성인

여성의 경우 자아실현 욕구는 기혼여성보다 미혼여성이 더 높고 자아실현욕구가 높을수록 의복의 이론적인 측면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하였다.[27]

Perry등[28]은 의복행동이 인구통계학적변인 즉 연령, 수입, 교육수준, 직업중 어떤변인과도 관련이 없으며 자아실현성이 높을수록 의복관심은 낮다고 하여 자아실현성이 의복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Ryan[29]은 의복관심도가 낮은 사람은 자기지향적이고 관심이 많은 사람은 적응할 환경에 더욱 의존한다고 밝혔다. 또한 Pasnak와 Ayres[30]는 유행하는 옷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은 타인을 의식하기보다 자신을 위해 의복을 선택함으로서 개인지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Boehem[31]은 설득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지향적이고 내적지향적이며 감정반응의 민감성이 많아 자아실현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설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Horn[32]은 개성주의자들이 내적지향적이므로 집단행동과 무관하게 의사결정을 하며 내적기준에서 독립된 사고를 하므로 의복에서 강한 개인적 신념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진다고 하였다. 강혜원[25]도 내향적인 사람은 개성적인 의상에 관심이 높고 유행에는 관심이 낮은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슷한 의상 및 유행에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III. 연 구 방 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진주, 대구에 거주하는 20~50대의 기혼, 미혼여성으로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부 및 초, 중, 고교사, 학교자모, 회사원, 은행원, 대학생을 다수 포함시킨 750명의 성인여성을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1988년 6~8월 사이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처리 과정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647명의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1) 자아실현 검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Maslow의 자아실현 이론에 근거를 두어 자아실현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인을 측정하도록 제작된 김재은·이광자의 자아실현 검사 이다.[10]

이 검사의 내용은 두개씩 짝지워진 130개의 문항이 서로 대조되는 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험자는 두개씩 짝지워진 각 글 중에서 자신의 가치기준과 부합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문항은 인본주의, 실존주의, 형태심리학의 이론적 기초위에서 수립되었다.

검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요인은 크게 시간척도(Time Scale)와 지향척도(Support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척도는 시간효율성(현재지향성, Time competent)과 시간비효율성(과거지향성, Time Incompetent)으로 나뉘며 지향척도는 내부지향성(Inner Directed)과 외부지향성(Other Directed)으로 나뉜다. 지향척도는 다시 요인별로 분류되어 8개의 하위척도를 구성하고 8개의 하위척도는 한 문장이 한 척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척도를 동시에 다루도록 되어 있다. 각 척도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성(Tc/Ti: Time Competent/Incompetent)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중심으로 과거지향적과 현재지향적 혹은 미래지향적으로 구별하여 측정한다.

(2) 지향성(Other Directed/Inner Directed)

한 개인의 행동양식이 자신을 향해 있는지 타인을 향해 있는지 즉 내부지향적인지 외부지향적인지를 측정한다.

(3) 자아실현성(SAV: Self Actualizing Values)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를 측정한다.

(4) 실존성(EX: Existentiality)

자아실현성을 보충하는 척도로서 실존성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가치나 원측을 적용하는데 융통성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원측적용에 있어서 판단을 잘하여 적용하는가를 측정한다.

(5) 감수성(FR: Feeling Reactivity)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혹은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한다.

(6) 자발성(S: Spontaneity)

자발적인 행동으로 감정표현을 하는 능력이 있는

지 혹은 감정표현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7) 자기긍정성(SR: Self Regard)

자존감에 대한 정도 즉 자기자신이 가치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물로 생각하며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지 혹은 자기를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물로 생각하며 자기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지를 측정한다.

(8) 자기수용성(SA: Self Acceptance)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혹은 자신의 유약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9) 인간관(NC: Nature of man, Constructive)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보는지 혹은 선보다 악에 가깝다고 보는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10) 포용성(C: Capacity for Intimate Contact)

인간관계를 어떤 기대나 의무감 없이 친근하게 가질 수 있는지 혹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한다.

2) 의복선택행동

의복선택행동 척도는 선행연구[25,33,34]에서 사용된 문항으로 동조, 개성, 유행성을 포함한 3개 하위변인이며 전체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단계로 평가 되었다.

3) 인구통계학적 변인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연령은 20대(N=292) 30대(N=192) 40대이상(N=163)이며 학력은 중졸(N=33) 고졸(N=258) 전문대(N=63) 대졸(N=293), 그리고 수입수준은 30만원이하(N=62), 30~49만 원(N=147) 50~69만 원(N=218) 70~89만원(N=114), 90만원이상(N=106)으로 하였다. 또한 결혼여부는 기혼과 미혼으로, 가족형태는 핵가족과 확대(대)가족, 성장지역은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고 직업 및 종교는 유, 무만을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

우선 중다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인중 명목변인인 결혼여부, 직업유무, 성장지역, 종교유무, 가족형태를 가변인으로 전환한다음 모든 변인들 즉 인구통계학적변인, 자아실현 변인들 그리고 의복선택행동변인들간의 상관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표 1>로 구하였으며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들만 선별하여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분석절차는 먼저 인구통계학적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실현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그 다음에는 인구통계학적변인과 자아실현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의복선택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의복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인 중요성 및 이러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각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각 의복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3개의 경로 모형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분석

<표 1>은 본 연구에 포함시킨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인구통계학적변인들은 자아실현도와 의복선택행동에 부분적으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의복선택행동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아실현도와 의복선택행동과의 상관을 보면 의복의 개성은 자아실현 하위변인중 시간성, 지향성, 자아실현성, 감수성, 자기긍정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동조성은 시간성, 지향성, 자아실현성, 감수성, 자발성, 지기긍정성, 포용성과 負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의복에서 개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현재지향적이고 내부지향적이며 자아질현성이 높고 또한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존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동조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과거지향적이고 외부 즉 타인지향적이며 자아실현성이 낮았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 덜 민감하고 자발적인 행동으로 감정표현을 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자존감이 낮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행성은 자기긍정성, 자아실현성과 정적, 자기수용성, 포용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유행하는 의복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여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성

<표 1>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연령	1.000																					
(2) 결혼여부(기혼)	.813***	1.000																				
(3) 학력	-.606***	-.570***	1.000																			
(4) 월수입	.305***	.244***	.024	1.000																		
(5) 직업유무(유)	.171***	.196***	-.126***	.054	1.000																	
(6) 성장지역(도시)	.042	.004	.124***	.252***	.005	1.000																
(7) 종교유무(유)	.327***	.249***	-.229***	.042	.109**	.008	1.000															
(8) 가족형태(핵가족)	-.058	-.048	.044	-.011	-.016	.056	-.057	1.000														
(9) 매디아접촉도	.091**	.032	.027	.131***	-.036	.136***	.116**	-.023	1.000													
(10) 시간성	-.089*	-.108**	.102**	.028	.076*	-.032	-.045	.068*	-.047	1.000												
(11) 지향성	-.221***	-.279***	.190***	-.034	.028	.021	-.123***	.094**	-.006	.402***	1.000											
(12) 자아실현성	-.267***	-.305***	.221***	-.007	.023	.031	-.070*	.065*	.026	.287***	.587***	1.000										
(13) 실존성	-.211**	-.220***	.184***	-.082*	-.034	-.028	-.157***	.065*	-.034	.355***	.591***	.217***	1.000									
(14) 감수성	-.173***	-.219***	.139***	-.037	-.016	.050	-.059	.078*	.019	.203***	.599***	.422***	.323***	1.000								
(15) 자발성	-.044	-.091**	.042	.032	.112**	.040	.010	.050	.009	.315***	.643***	.456***	.309***	.444***	1.000							
(16) 자기긍정성	-.116**	-.170***	.118***	.044	.074*	.009	-.026	.065	.068*	.291***	.508***	.508***	.237***	.235***	.357***	1.000						
(17) 자기수용성	-.117***	-.123***	.113**	-.088*	.058	-.001	-.149***	.044	-.040	.352***	.514***	.100**	.391***	.190***	.299***	.121***	1.000					
(18) 인간관	-.283***	-.286***	.223***	-.052	-.081*	-.040	-.190***	.060	-.060	.376***	.403***	.449***	.236***	.170***	.282***	.326***	.136***	1.000				
(19) 포용성	-.077*	-.102**	.024	-.089*	.014	-.024	-.027	.051	-.043	.281***	.623***	.211***	.529***	.525***	.456***	.224***	.357***	.141***	1.000			
(20) 유행성	.012	-.009	.048	.118***	-.028	.095**	.020	-.009	.374***	-.019	-.011	.110**	-.052	.016	-.018	.078*	-.073*	.036	-.093**	1.000		
(21) 개성	-.066	-.099**	.104**	.051	.064	.054	-.040	.093**	.198***	.070*	.104**	.221***	.041	.117***	.030	.146***	-.046	.056	-.009	.406***	1.000	
(22) 동조성	-.017	.018	.080*	.049	-.092**	-.019	-.024	-.131***	-.027	-.077*	-.198***	-.196***	-.063	-.169***	-.161***	-.206***	-.054	-.006	-.160***	.068	-.267***	1.000
Mean										49.618	47.487	49.387	47.892	48.699	52.822	49.969	49.306	54.587	47.694	22.814	24.524	20.536
S.D										9.996	9.307	10.876	10.315	10.146	9.549	11.471	9.676	10.781	9.637	4.747	3.751	3.522

*p<.05 **p<.01 ***p<001

향이 높은 반면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관계에 여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복에서 동조, 개성, 유행성 행동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표현적인 행동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의복선택행동의 경로분석

인구통계학적변인들과 자아실현 하위변인들이 의복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 및 경로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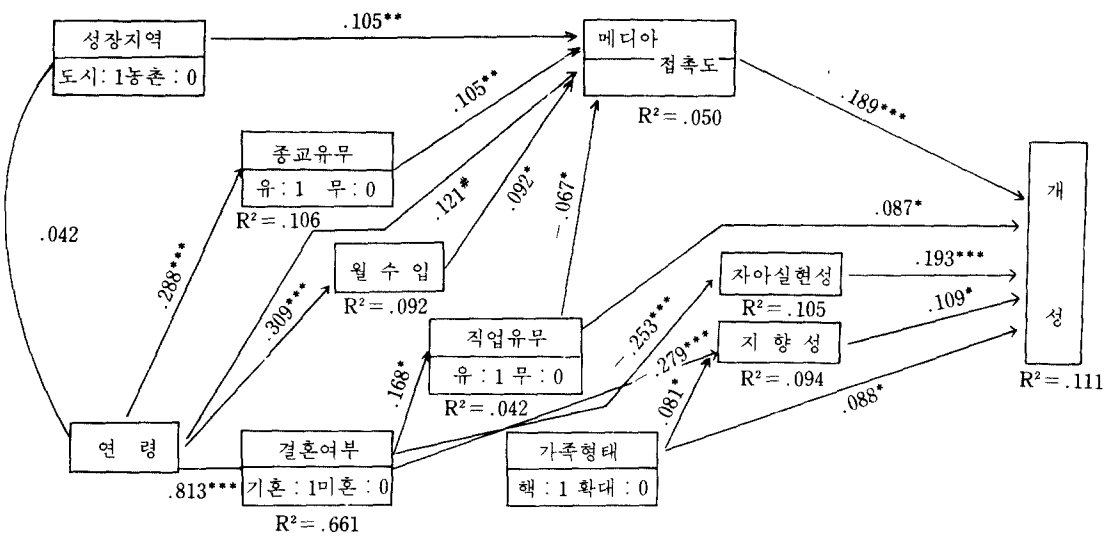
의복의 개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매개변인인 자아실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보면 하위변인중 자아실현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결혼여부(p<.001)로 負의 영향(β=−.253)을 미쳐 미혼 여성이 기혼여성보다 자아실현성이 높은 경향을 보여 선행연구 결과[27]와 일치한다.

다음 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결혼여부(p<.001)와 가족형태(p<.05)이며 결혼여부는 지향성에 負의 영향(β=−.279)을 주었다. 즉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그리고 핵가족 구성원이 대가족 구성원보다 내부 즉 자기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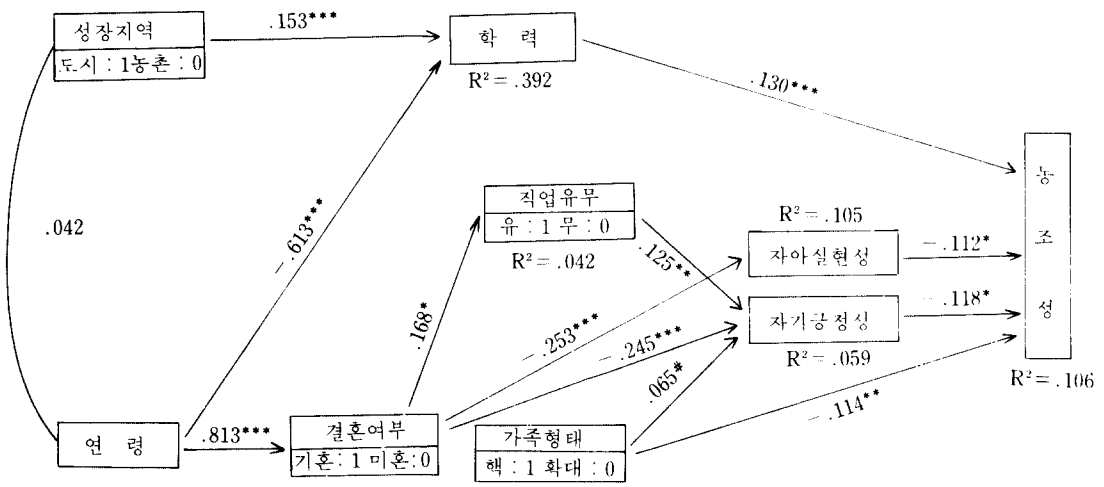
개성적인 의복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메디아접촉도(p<.001)와 가족형태(p<.05) 및 직업유무(p<.05)이며 자아실현 하위변인으로는 자아실현성(p<.001)과 지향성(p<.10)으로 나타났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변인은 자아실현성으로 자아실현성이 높을 수록(β=.193) 의복에서 개성표현을 중시하며 이러한 경향은 기혼여성보다 미혼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메디아접촉도가 높을수록(β=.189) 개성이 높게 나타나 여성잡지를 많이 보는 사람이 의복에서 개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메디아접촉도에 영향을주는변인은성장지역(p<.01), 종교유무(p<.01) 월수입(p<.05), 연령(p<.10), 직업유무(p<.10) 였다. 즉 도시 사람이 농촌사람보다 높고(β=.105),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β=.105) 그리고 월수입이 높을수록(β=.092) 메디아접촉도가 높았으며,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갖지 않은 미혼여성이 높았다. 이들 변인들은 메디아접촉도를 통해서 개성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형태는 대가족보다 핵가족의 구성원일수록(β=.088) 의복에서 개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확대가족이 집단지향적인 반면에 핵가족은 개인지향적이어서 핵가족 구성원들은 타인을 의식하기보다 자신을 위해 옷을 입는 개인지향적인 태도가 의복에서 그대로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



*P<.10 *P<.05 **P<.01 ***P<.001

〔그림 1.〕 의복의 개성에 대한 경로분석



#p<.10 *p<.05 **p<.01 ***p<.001

〔그림 2.〕 의복의 동조성에 대한 경로분석

는 Chen등[11,18]의 연구결과를 간접으로 지지해 준다.

그 다음으로 직업유무는 직업을 갖지않은 사람보다 가진 사람(β=.087)이 의복에서 개성을 중시하였다. 이는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의복을 통해 보다 타인과 다르게 자신을 표현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지향성이 높을수록(β=.109) 의복에서 개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부 즉 타인지향적인 사람보다 내부 즉 개인지향적인 사람이 의복선택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표현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ahng[11]과 강혜원[25]의 연구결과 및 Horn[32]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 1〉에서 학력은 동조성보다 개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어떤 경로로도 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변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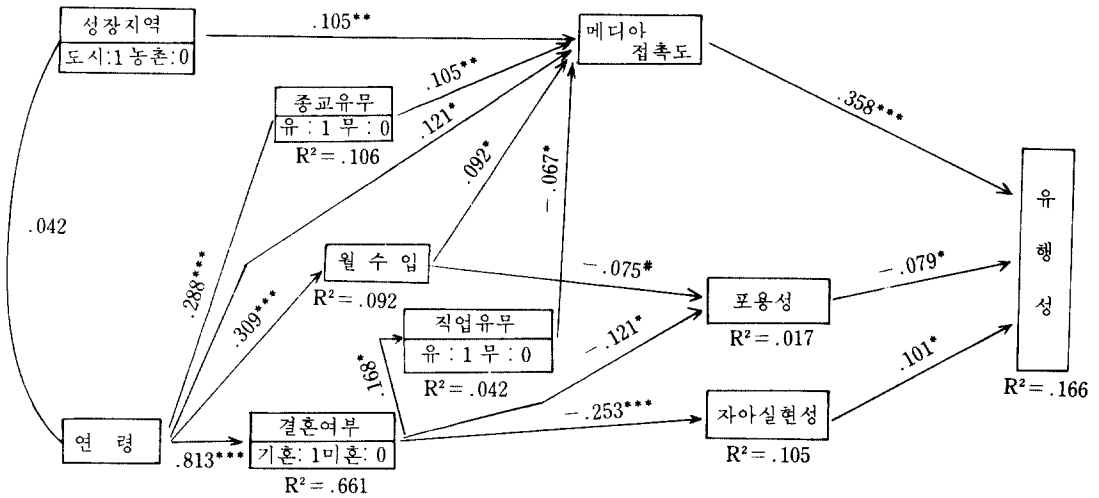
2) 동조성

의복의 동조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자아실현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면 자아실현 하위변인중 자아실현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결혼여부로 개성행동과 동일하다. 자기긍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변인인 결혼여부($p<.001$)와 직업유무($p<.01$) 그리고 가족형태($p<.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자기긍정성에 負의 영향(β=-.245)을 미쳐 기혼여성은 자기긍정성이 낮았다. 즉 미혼여성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데 반해 기혼여성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여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또한 직업을 갖지 않는 여성보다 가진여성(β=.125)이, 가족형태에서 대가족보다 핵가족의 구성원(β=.065)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조적인 의복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p<.001$)과 가족형태($p<.01$), 자아긍정성($p<.05$), 자아실현성($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연령과 성장지역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즉 연령이 낮고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학력이 높았다. 학력은 동조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변인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β=.130) 의복에서 동조성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에 여대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Williams와 Eicher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다음 가족형태에 있어서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의 구성원(β=-.114)이 의복행동에서 동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성행동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특성에 비추어 볼



#p<.10 *p<.05 **p<.01 ***p<.001

〔그림 3.〕 의복의 유행성에 대한 경로분석

때 핵가족보다 대가족의 구성원들이 태도에서 엄격하고 관습적이며, 또한 타인의 태도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집단규범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의복에서 동조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권의주의와 동조사이의 상관을 밝힌 Cruchfield, Beloff[17]의 연구결과 및 집단지향적인 사람이 집단규범을 중시하여 의복에서 동조성향이 높다고 한 Chen[11]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다음으로는 자기긍정성이 낮을수록(β=-.118) 의복에서 동조성은 높게 나타나 자존감이 낮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타인의 의복에 동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 집단의 압력에 따르기 쉽다는 Marlowe와 Gergen[13]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높은 기혼여성과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갖지않은 사람이 그리고 핵가족보다 대가족의 구성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자아실현성이 낮을수록(β=-.112) 의복에서 동조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성취성향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나 태도에 민감하여 개인적인 확신감이 낮기때문에 의복을 통해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소속집단의 의복규범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층이 높은 기혼여성에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유무, 월수입, 메디아접촉도는 어떤 경로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유행성

의복의 유행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의복의 유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전에 매개변인인 자아실현성과 포용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검토해 보면 먼저 자아실현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결혼여부(p<.001)로 개성행동과 동일하다. 포용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결혼여부(p<.10)와 월수입(p<.10)이며 두변인 모두 負의 영향을 미쳐 기혼여성보다 미혼여성(β=-.075)이, 그리고 월수입이 낮은 사람일수록(β=-.121) 포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유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메디아접촉도(p<.001), 자아실현성(p<.05), 포용성(p<.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메디아접촉도는 유행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여성잡지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유행하는 의복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메디아접촉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보면 성장지역, 종교유무, 월수입, 연령, 직업유무이며 이들 변인들은 메디아접촉도를 통해서 유행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자아실현성이 높을수록(β=.101) 유행성

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미혼여성이 높았다. 이는 미혼여성이 기혼여성보다 성취욕구가 강하여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것이 자기를 성취해가는 하나의 표현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유행성은 개성 및 동조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므로서 〈표 1〉 유행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개성을 추구하거나 집단규범에 동조하는 수단으로 유행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포용성이 낮을수록(β=−.079) 의복의 유행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유행하는 옷을 중시하며 이러한 경향은 월수입이 많고 또한 기혼여성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 및 가족형태는 어떤 경로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자아실현도 및 인구통계학적변인이 의복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자아실현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하위변인중 자아실현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결혼여부이고 지향성과 자기긍정성에는 결혼여부, 가족형태가, 그리고 포용성에는 결혼여부 및 월수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여성은 기혼여성보다 자아실현성이 높고 내부지향적이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자존심이 높고 포용성이 크다. 또한 핵가족 구성원이 대가족성원보다 내부 즉 자기지향적이고 자존감이 높았으며, 월수입이 낮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복의 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아실현 하위변인으로 자아실현성과 지향성이며, 메디아접촉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변인으로는 가족형태 및 직업유무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을 제외한 성장지역, 종교유무, 월수입, 연령, 직업유무는 메디아접촉도를 통해서, 결혼여부는 자아실현성과 지향성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의복의 동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아실현도의 하위변인으로 자기긍정성과 자아실현성이며 인구통계학적변인으로는 학력과 가족형태였다. 그리고 성장지역, 연령은 학력을 통해서, 결혼여부, 직업유무, 가족형태는 자기긍정성을 통해서, 그리고 결혼여부는 자아실현성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의복의 유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메디아접촉도와 자아실현 하위변인중 자아실현성과 포용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장지역, 종교유무, 월수입, 연령, 직업유무는 메디아접촉도를 통해서, 월수입과 결혼여부는 포용성을 통해서, 결혼여부는 자아실현성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에서 개성주의자는 자아실현성이 높고 내부 즉 자기지향적이며, 여성잡지 접촉도가 높고, 직업을 가질수록 그리고 개인지향적인 핵가족 구성원일수록 자신의 개성표현을 중시하였다. 반면에 동조주의자들은 의복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려는 성향이 낮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며 집단지향적인 대가족 구성원일수록 집단규범의 옷을 중시하고 학력이 높은 여성들의 동조경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메디아접촉도의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행을 중시하는 사람은 메디아접촉도가 매우 높았으며 자아실현성이 높은 반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인구통계학적변인은 자아실현도와 의복선택행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자아실현은 의복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구통계학적변인과 의복선택행동을 매개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모든 생활의 장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자아실현의 정도가 개인의 잠재력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한 Goldstein과 잠재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아실현의 의미가 다르다고 한 Maslow의 견해를 지지하고 의복이 자아를 성취하는 표현의 장이 되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

참 고 문 헌

1. Simmel, G., "Fash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2**, 1957, p. 546.
2. Cruchfield, R.S., "Conformity and Character" *The American Psyehologist*, **10**, 1955, pp. 191-198.

3. 이상노, 이관용, 성격의 이론,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85, pp. 266-270.
4. Maslow, A.H.,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Row, publishers., 1970.
5. 박채균 외 2인, "자아실현을 위한 심리학적 접근," 생활지도연구소, 제6집, 조선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 1982, pp. 3-5.
6. Purkey, W.W., Self 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Prentice-Hall, Inc., New Jersey, 1967.
7. Hall, C.S. & G Lindzey, Theories of Personality,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70, p.516.
8. 윤희준, "자아개념과 적응행동과의 관계," 학생지도연구소, 제5집, 공주사범대학 부설학생지도연구소, 1976, pp. 3-9.
9. 이훈구 역, 성격심리학, 법문사, 1985, pp. 450-53.
10. 김재은, 이광자, 자아실현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연구소, 서울, 1977, pp. 3-15.
11.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1984, pp. 99-100.
12. Cruchfild, R., "Independent Thought in a Conformist World," in Farber and Wilson (eds), Conflict and Creativity, McGraw-Hill Book Co, New York, 1963, p. 225.
13. Marlowe, D., & K.J. Gergen, "Personality and Social Interaction," in G. Lindzey and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3, 2nd ed,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69, pp. 590-665.
14. Williams, M.C., & Eicher, J.B., Teen-Ager's Appearance and Social Accptance, *J of Home Economics*, **58**, 1966, pp. 460-461.
15. Secord, P.F., & Backman, Social Psychological, (Tokyo: McGraw-Hill Kogakusha), 1964, p. 351.
16. Smucker, B & Creekmore, A.M., Adolescents' Clothing Conformity, Awareness, and Peer Acceptance, *J of Home Economics*, Vol. 1, No. 2, 1972, pp. 92-97.
17. Be$_{10}$ff, H., "Two Forms of Social Conformity; Acquiescence and Conventionality," *J. Abnorm. Soc. Psychology*, **56**, 1985, pp. 99-104.
18. 강경자,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가치관과 의복선택행동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3호, 1986, pp. 31-42.
19. 김정호, 사회계층과 의복형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20. 양명희, 청소년기 근로여성의 의복선택행동과 자아개념과의 상관연구, 숙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21. 이선재, 한국여성의 의복선택요인과 가치관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아세아연구소, 1983, pp. 114-123.
22. Ebeling, M., and Rosencranz, M.L., Social and Personal aspects of Clothing for Older women, *J. of Home Economics*, **53**, 1961, pp. 464-465.
23. Shipley, S., and Rosencranz M.L., Old women's Clothing Preference. *J. of Home Economics*, **54**, 1962, p. 854.
24. Jenkins, M.C., and Dickey, L.E., Consumer Types Based on Evaluative Criteria Underlying Clothing Decisions, Home Economics R.J., Vol. 4, No. 3, 1976, pp. 150-162.
25.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974, pp. 349-375.
26. 神山進, 被服心理學(東京 : 光生館) 1985, p. 171.
27. 강경자, Maslow의 기본욕구가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제13권 제1호, 1989, pp. 1-12.
28. Perry, M.O., Schutz, H.G., & Rucker, M.H., Clothing Interest, Self-Actualization, and Demographic Variables, *J. of Home Economics*, Vol. 11, No. 3, 1983, pp. 280-288.
29. Ryan, M.S., Psychological Effects of Clothing, Part II: Comparison of College Students with High School Student, Rural with Urban Students, and boys with Girls. Ithaca: Cornell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Bulletin 898, 1953.
30. Pasnak, M.F.D., & Ayres, R.W., Clothing Atitude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Fashion Innovators, *J. of Home Economics*, **61**(9), 1969, pp. 698-702.
31. Boehem, L.C., Persuasibility and Visual perception of a dress design as related to Selecte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 State Univ., 1970.
32. Horn, M.J.,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 1975, p. 176.
33. 이인자, 의상흥미와 배경간의 상관관계, 건대연구소보 제4집, 1980, p. 51-64.
34. 박은주, 의복선택기준에 관한 요인구조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